



## 한농연 중앙연합회 소식

### 한농연 제4차 이사회 열려

「우리 쌀 사수 농협개혁을 위한 350만 농민 투쟁 선포대회 및 이경해 열사 1주기 추모식」을 내달 9일에 열기로 결의

지난 13일(금) 한농연회관 5층 강당에서 제4차 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주요 의안은 이경해 열사 1주기 추모식 및 투쟁선포식 개최 계획(안), 제 13회 전국으뜸농산물전시회 개최계획(안)이었으며, 제9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 관련 결과보고도 함께 이루어졌다.

첫 번째 의안인 이경해 열사 1주기 추모식 및 투쟁 선포식 개최(안)와 관련하여 한농연중앙연합회 서정의 회장은 “이경해 열사의 1주기인 9월 11일을 전후로 열사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350만 농민들의 의지를 모아 하반기 한농연 농민운동의 결정적 계기로 활용하자”고 했다. 이에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간 「우리 쌀 사수, 농협개혁을 위한 350만 농민 투쟁선포대회 및 이경해 열사 1주기 추모식」을 전국 시군단위 동시다발로 진행하는 것을 결의하였다. 농민 투쟁선포 대회는 9월 9일 14:00, 이경해 열사 1주기 추모식은 9월 11일 11:00에 열린다.

김흥기 수석부회장은 “이번 대회가 각 시군에서 동시다발로 이루어지는 만큼 각 시군과 도연합회, 그리고 중앙연합회 사이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두 번째 의안인 제 13회 전국으뜸농산물전시회는 으뜸농산물전시회 추진위원회에 위임기로 결의하였다.



## 산하연합회 소식

### 한농연경주시연합회- '협동조합 개혁' 결의대회 열어

한농연경주시연합회(회장 김혁연)는 지난 1일 경주시 보문단지 내 아리원에서 회원 30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결의대회 및 교육' 을 가졌다.

이날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회원들은 △농업소득과 직결되는 지도·경제사업 강화 △고비용 저효율의 지역 농협 임금구조 타파 △투명하고 공개적인 조합 운영 등을 골자로 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김혁연 회장은 대회사에서 “농민 조합원 위에 군림하며 반농업·농민적인 협동조합의 개혁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경제사업 활성화와 비효율적인 임금구조 타파 등 농협개혁을 위해 오늘 참석한 농민 동지들이 앞장서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괴산·증평 농민단체 농협개혁 촉구

충북 괴산·증평군 농업경영인연합회, 괴산군 농민회, 증평농민단체협의회는 지난 10일 증평군 증평읍 증평농협 앞에서 농민 등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협동조합 개혁보고대회' 를 갖고 농협개혁을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농협이 농민을 위한 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조합경영에 농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각 조합은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또 “조합의 경영합리화 등을 위해 현재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조합장, 전무, 상무 등 임원의 임금을 하향 조정하고 대의원회를 실질적인 조합원들의 대의기구화 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괴산·군자·불정·증평·청천농협 등 5개 지역 농협 조합장들이 협동조합 개혁안(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합의서에 따르면 먼저 농협의 본소와 지소 객장에 이사 회의록, 대의원 총회 회의록, 대의원 총회에 제공하는 예·결산서, 중앙회에 제출하는 예·결산 보정보고서를 비치토록 했으며, 감사 보고서도 세부내역까지 공개하고 3개월간 공시키로 했다.

또한 농협 발전을 위해 임금체계도 조정키로 하고, 농협의 교육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합의안이 적용되려면 각 조합 노조 등의 동의가 필요해 합의안이 원안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노조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임금체계 등에 대한 조정이 합의안에 포함돼 있어 향후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 그 밖의 농업계 소식

### 전국 낙농인 총궐기대회 열어 낙농보호정책 촉구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6일 서울여의도 문화광장에서 회원 약 6천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 낙농인 총궐기대회'를 열고 ▲납품원가 현실화 ▲낙농진흥회 기준원유량 원상회복 ▲축산업등록제 2010년 유예 ▲학교급식 의무화 확대 및 단체급식 보조지원 ▲혼합분유 수입중단과 국산원유 대체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이날 대회에서 “농촌노임과 사료 값, 소비자 물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원가는 7년째 동결, 낙농가 1천여 곳이 매년 폐업하는 등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납품원가가 현실화되도록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또 “지난해 기준 국내 원유소비량은 300만t으로 조사됐고 국내 생산량은약 237t에 불과하지만 3년째 생산을 제한당하고 있다”며 “기준 원유량을 초과생산하면 가격을 절반으로 하는 '잉여원유차등가격제'를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승호 협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진 10여명은 대회직후 곧바로 여의도국회의사당 앞에서 요구 사항 관철을 위해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 여성단체 '우리쌀 지키기' 촉구



쌀 개방 반대와 식량주권 사수를 위해 여성농민들이 보름간의 일정으로 전국순례에 나섰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윤금순)이 주관하는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하는 우리쌀 지키기 여성통일대행진' (이하 대행진단)이 지난 2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름간의 대장정에 나섰다.

이들은 출발에 앞선 결의문에서 “노무현 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나라의 주권이 걸린 쌀을 미국의 개방압력에 무력하게 넘겨

주려 하고 있다”며 “전국을 순회하며 우리 쌀을 사랑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행진단은 2일 광주를 출발해 전북, 경남, 대구경북, 충청, 경기, 인천을 거쳐 오는 14일 서울에 도착 8·15 민족공동행사에 참가할 예정이다. 또 15일에는 여성 통일 한마당을 개최하며, 오는 26일에는 대전에서 전국 여성 농민들이 참가하는 ‘우리 쌀 지키기 여성농민 전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행진단은 전국 순례 완주자와 3박4일 동안의 릴레이 참가단을 포함하여 상주인원 30~40명이 참가하게 된다. 대행진단은 각 도청 소재지에서 주요 여성단체들과 함께 식량주권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대행진 기간에 우리쌀 지키기 서명운동과, 파병철회 운동도 함께 펼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진단에는 농민출신인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참가단의 일원으로 참여해, 현장을 직접 뛰며 ‘식량주권 사수’ 의지를 드높인다는 계획이다.

## 농민연대, 농지법 개정안등 철회 촉구



전국농민연대(상임대표 정재돈)는 지난 5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규탄 및 추곡수매제 폐지·농지제도개악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추곡수매 국회 동의제 폐지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농민연대는 이날 “정부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공공비축제로의 전환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겠

다는 것으로 이는 쌀 산업 포기과 한국 농업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민연대는 이어 “최근 제시된 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 초안은 그야말로 논의의 기본골격일 뿐 구체적인 수치를 반영한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상의 세부원칙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정부가 개방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대책없이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패배주의”라며 반발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법 개정안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한 헌법조항을 어겨가면서 농민을 농토에서 쫓아내고 투기꾼을 농촌의 주인으로 만드는 농지투기법”이라며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농지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거듭 요구했다.

농민연대는 정부가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